



# 행복한 아이들의 성장 레시피

▶ 발행인 : 교장 오 향 주  
▶ 주 관 : 교감 조 민 숙  
▶ 편집인 : 교사 이 미 화  
▶ 펴낸곳 : 행안 초등학교

• 579-830 전북 부안군 행안면 월륜길 18 • 연구실 584-1205 • <http://www.ha.es.kr>

2015년 제 7호

발행일 2015. 11. 30.(월)

##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 찾기(1학년)



11월에는 ‘전통문화’를 주제로 세계 속의 우리 것을 찾아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생활 속의 전통문화를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의 특징, 우리의 전통음식, 우리의 옷인 한복에 대하여 탐구하는 시간을 함께 했다. 또, 세계 문화유산이 된 우리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기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탐구활동의 경험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래노래 배우기, 전통 춤 등을 따라 해보고, 전통적인 도구나 문양들을 표현하는 놀이를 함께 하면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파악하게 되었고 세계 속의 우리 것을 찾아보고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며, 우리 문화 지킴이로써 미래의 1학년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하나인 듯 하나아닌 하나같은 우리 2학년의 우리나라 프로젝트

2학년 학생들은 11월 우리의 한겨레 북한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컴퓨터실에 모여 정보를 검색하고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북한의 ‘음식, 명절, 자연환경, 동물, 도시’에 대해 궁금한 정보들을 검색하였다. 처음 하는 정보 수집 활동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서로 서로 도와가며 해낼 수 있었다. 수집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간추려 보았다. 이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북한과 우리나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았다. 또 북한말을 보고 무슨 뜻인지 추측해 보기, 우리나라 말을 북한말로 바꾸어 보기 활동을 통해 생각보다 북한말이 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께 우리말 대신 북한말을 사용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통일 교육원의 ‘한마음학교 통일교실’이라는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면서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점이 많지만 분단된 세월의 흐름 때문에 달라 지게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통일이 되면 2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색종이가 찢어 꾸미기로 한반도 지도를 완성해 보았다.



## 3학년 ‘작가의 삶’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

3학년 마지막 프로젝트는 책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만들어진 책을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어과를 중핵 교과로 놓고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정리하는 글쓰기 등을 종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고, 색연필, 사인펜 등을 사용하여 책에 어울리는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책 만들기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군대, 로봇, 역사, 다문화, 퀴즈 등 평소 자신의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정리하였고 이를 친구들과 서로 돌려 읽으며 칭찬 한마디, 충고 한마디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은 진정한 배움의 확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장면이었다.



## 존중, 사회를 바꾸는 열쇠(4학년)

'생동하는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존중, 사회를 바꾸는 열쇠'라는 이름아래 탈바꿈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주제별로 우리가 알게 된 우리 사회 모습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봤다. 첫 번째 의견은 바람직한 가족으로서 의미를 다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남자와 여자는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세 번째 의견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네 번째 의견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정리해보니 각 의견의 공통점이 눈에 띄었다. 바로 '존중'이다. 우리 사회의 모습은 다양하고 아직도 변화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아 '존중, 사회를 바꾸는 열쇠'라고 4학년 심진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목을 다시 정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수화'를 연습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름다운 세상' 두 가지 곡은 우리 4학년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있다.

♪자녀선 이를 수 없죠, 세상 무엇보다,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 5학년의 문화유산 체험과 표현활동 프로젝트

1학기에 실시한 문화유산 방문교육의 연장으로 전주 완판본 전시관과 향교, 동헌, 그리고 양반가옥을 견학하고 강령탈춤과 사자춤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어의 견문과 감상 글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글을 써보았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을 통해서 알고 느꼈던 점을 표현했기에 어느 글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북선을 끝으로 문화유산 모형만들기가 완성되었다. 청성대, 판옥선, 그리고 거북선.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보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긴 시간 힘들게 만들었기에 학생들이 성취감과 전시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끝으로 미술과 사회를 접목한 활동으로 고려시대의 대표 문화재인 고려청자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해보았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다가 모양을 빚고, 건조 후 색을 입히고, 다시 건조 및 새기고 직접 유약 대신 투명페인트를 칠해 건조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친구들의 칭찬과 스스로의 만족감에 입가의 작은 미소를 내비쳤다.

5학년 친구들, 너희들이 얼마나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잘하는 아이들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양정원 선생님♥



## 사람이 미래다!

### 6학년의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 주제통합수업

우리 6학년 아이들이 나와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 수업을 한 달간 진행했다. 우리나라 헌법,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글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읽은 뒤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사회교과의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아이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프로젝트이다. 11월 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을 시작으로 행정부와 국회, 법원의 삼권분립 체제를 구성한 뒤 여러 번의 토의를 거쳐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 공포와 함께 국회에서는 각종 법규 작성에 힘을 쏟았다. 교육활동의 여러 가지 사항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열었다. 교육부에서는 아침 차 마시기와 같은 교육 사업들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졸업 여행을 기획하였다.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선 폭력 없고 청결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안과 제도(청소 구역에 관한 게 많았다.)를 발의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동안 교과서의 글 속에서만 배우던 인문사회와 정치에 관한 내용을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 이 작은 참여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